

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2. 26.(금) 배포</p>			
보도일	2021. 3. 1.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2. 28.(일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교육복지정책과	담당자	과장 사무관	장미란 이승영	(☎ 044-203-6526) (☎ 044-203-6521)

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!

- 2021년,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-

- ◆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,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
- ◆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·중·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.
 -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, ②수업료, ③학교 운영지원비,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,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.
 - 2019년 2학기 고 3학년(49만 명), 2020년 고 2·3학년(85만 명)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,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·중·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.
-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·2·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, '입학금·수업료·학교운영지원비·교과서비'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.

-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,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(2020년 말 기준, 94개교)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,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특히,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, 초·중·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·지역·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,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,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학부모 인터뷰

- ❖ 올해 고등학교 1학년,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
 - “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,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”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,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·중·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